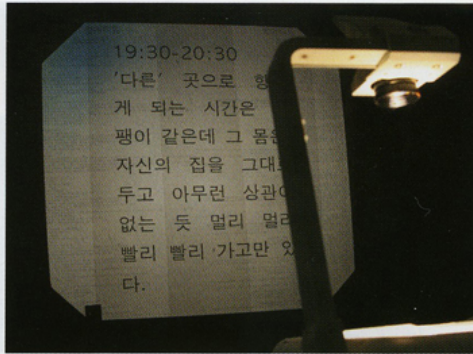


구민자展

1. 9~24

스페이스크로프트

글 | 이대범 · 미술평론가



〈42.195〉는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여 42.195km를 완주하거나, 'Walking measure'를 통해 일상의 움직임 가운데 42.195km를 기록한다. 〈Air parcel〉은 어디론가 흘러가는(흘러간) 공기의 흐름을 기록한다. 〈향연: symposion〉은 달이 뜨는 시간부터 달이 지는 시간까지(2007년 12월 29일 밤 11시 5분부터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까지) 만 30세 6명의 남녀가 나는 사랑에 관한 대화를 기록한다. 〈Identical times〉는 24시간의 시간과 장소를 관찰하여 만든 24개의 리포트와 서머타임과 관련된 비슷하면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기록한다.

구민자의 작업은 무언가를 '기록' 함으로 완성된다. 그렇다고 '기록'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구민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록의 끝 지점을 어떻게 상정하는가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기록은 행위의 마침이 아니라 행위와 상관 없는 우연적 요소에 의한 일시중지이기 때문이다. 〈향연〉의 마지막은 '이제 일어날까'이다. 12시간 가까이 나는 사랑의 이야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 없는 달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42.195〉에서 'Walking measure'로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 행위 역시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정한 거리에 도달했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임의로 분절하는 것은 일년을 365일(혹은 366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24시간을 다시 분으로 또다시 초로 나누는 것과 동일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 규범으로 인지된다는 정도이다. 체계를 분절하여 규격화하는 기저에는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여 얻게 되는 편리함이 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이 분절은 실상 그곳에 내재되어 있는 미묘한 차이와 그것의 모호함을 차단하여 일관된 틀로 통합한다. 연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연속을 가장한 분절이 자리한다. 이렇듯 쉽게 분절되는 체계에서 우리는 연속성이라는 불합리함(?)을 만끽하

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분절되면서 사라진 것들은 무엇이고, 우리의 연속성이 담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구민자의 작업은 누군가가 임의로 규정한 틀을 자신의 신체(말을 포함한)를 통해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어 자신의 일상을 재맥락화한다. 구민자의 전시는 이 분절의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다층적 말들의 집합이다. 〈향연〉은 6명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이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제한된 요건은 '나이'이다. 즉 동일한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년을 체계로 보았을 때 이야기이다. 실상, 이들은 사회에서 동일한 분류로 구분되고 있지만, 그래서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들이 살아온 생애는 합일할 수 없는 지점들이 놓여 있다. 1년을 365로 분절했을 때, 이들의 생애는 결코 동일하지 않은 상이한 사람들이다. 단지 나이가 같을 뿐이다. 〈42.195〉에서는 같은 거리를 작가가 이동한다. 마라톤 대회이고, 하나는 작가의 일상이다. 상이한 목적을 가진 이동은 동일한 거리라는 체계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나 동일한 거리의 시간은 그 목적(혹은 수단)에 따라 17시간이 걸리거나 8일이 걸리기도 한다.

〈Identical times〉는 시간과 방위를 결합하여 장소를 정하고 그 시간에 해당 장소의 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시간은 하루를 균일하게 분절하는 규칙이 아니라, 방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이된다. 아무런 의미 없는 두 조항이 필연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한다. 〈Air parcel〉에서 발생한 실제 공기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구민자가 제시한 흐름을 따라 흘러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은 구민자의 말처럼 "바람을 타고 계속 퍼져나가 지구 어딘가에 머무르거나 또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전시 전경